왜 정약용인가

학과 : 임베디드시스템공학과

학번 : 201901774

이름 : 최승렬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로서, 삶과 사상은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정약용의 과학적 세계관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 중국 외에도 수많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또한 인간 생활에서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을 일찍이 간파하고, 기술은 시대가 흐를수록 발전한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는 당시의 유교적 세계관과는 크게 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약용 선생은 당시 성행하던 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왕권 강화를 주장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통치권의 근원이 백성에게 있음을 역설하며, 백성의 희망과 이익에 부합하는 법 제정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토지를 고루 분배하여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전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단순한 토지제도 개혁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정약용은 당시 주자학에 경도된 학계의 풍토를 비판하며, 공자와 맹자로 대표되는 원시 유학으로의 회귀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당시 성리학적 이념에 얽매인 채 현실을 외면하던 지식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유학의 본질을 되살려 실사구시의 학문을 정립하려 한 혁신적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격언들은 그의 애민 정신과 청렴한 삶의 자세를 잘 보여줍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근심하라. 이 마음 없이는 학문도 문학도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은 학문의 궁극적 가치가 민생 안정에 있음을 일깨우는 말이며,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재물을 절약해 쓰는 데 있고, 절용하는 근본은 검소한 데 있다."라는 말은 위민 정신의 실천 방법을 제시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의 사상과 삶의 자세가 주는 시사점은 매우 큽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 민본주의와 애민 정신, 청렴 검소한 삶의 태도 등은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요즘, 다산의 사상을 되새기며 우리 각자가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지혜를 얻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